
교육문법 이론과 응용가능성

이 광 숙
(서울대학교)

Lee, Kwang-Sook. (2009). Educational Grammar in German language teaching in Korea,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2, 145-164.

It is time for German language teachers in Korea to strive for qualitative development. One of the tasks to achieve this is to develop German grammar books that explain the German language system in a way that suits Korean students. We should develop books on language learning, including German grammar,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the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We should adjust the selection and order of the parts of grammar depending on the level of difficulty, frequency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here should be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in German grammar. In this paper, I have made suggestions for the beginner level. The task in the future is to implement and systemize these suggestions all the way down to the details of each part of speech. It is not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strength of Korean students is their understanding of grammar. Instead of considering this strength as weakness, we should find a way to use it effectively in order to facilitate more qualitative German education.

Key Words: educational grammar, difficulty, frequency,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ginner level

I. 서론

현존의 외국어 교육은 컴퓨터, 인터넷 등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어느 때 보다도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도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구어, 특히 회화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의 구조적인 면이 무시될 수 없으며 이와 연관되어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사소통능력이 외국어학습의 목표로 간주되어도 언어체계를 습득하는 것 역시 이 목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Helbig, 1999, p. 108).

언어 교육에서도 문법의 비중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Gnutzmann & Königs, 1995, p. 13). 언어 수업에서 변화된 것은 문법을 문법 자체로 또는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범위나 제시 면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독일에서는 교육문법에 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서도 문법을 다루는 방식이 시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일어 교육은 나름대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법이 수업의 공간을 이루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문법의 제시나 전달 방식 면에서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이 상황도 변화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인 독일어교육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문법의 개념, 문법교육의 변천에 대해서 조사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 문법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독일어교육에서 교육문법의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교육문법의 개념

문법이란 언어 내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체계를 말하며 언어의 형태, 구조 뿐 아니라 음, 어휘, 의미를 포함한다(Helbig, 1992, p. 20). 문법은 기술하는 목표에 따라 언어학 기술을 위한 언어학문법(Linguistische Grammatik)과 수업을 위한 교육문법(Didaktische Grammatik¹⁾)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언어에 내재하는 규칙을 완전하고 세세하게 기술하는 반면에 후자는 언어학 문법 중에서 규칙을 취사선택하여 교재, 학습자나 학습과정에 적용시킨다(Helbig, 1999, p. 103). 따라서 언어학문법은 문법의 규칙을 체계화하고 의식화하여 언어 지식을 넓히는 것을 중시한다. 반면에 교육문법은 언어의 규칙체계의 기술보다는 이 체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응용하여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 교육문법의 개념은 적용되는 영역, 즉 교재, 교사, 학습자, 학습/교수과정에 따라 세분화 되고 있다.

특히 외국어수업에서는 문법이 언어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전달되어서는 안 되고 학습과정, 교수법, 방법론, 교재 등의 분야에서 학습자에 맞게 정리되고 배열되어야 한다(Helbig, 1993, p. 23).

괴체(Götze, 2001, p. 189)는 교육문법을 모국어와 외국어를 위한 것으로 분리하고, 또한 교사를 위한 것과 학생을 위한 것으로 나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문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교육문법에 해당하는 독일어 용어로는 pädagogische Grammatik, didaktische Grammatik이 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구분해서 쓰기도 한다. 민트(Mindt, 1981, p. 32)는 언어 자료를 선정하고, 단계를 나누고 제시를 하는 데에 정보를 주는 문법을 didaktische Grammatik이라 하였다. 그는 이 문법이 학습 요건(학교 타입, 학생 그룹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등)과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서 응용되면 pädagogische Grammatik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명칭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두 개념을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문법이라 하겠다.

교육문법은 언어학적인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언습했듯이 가르치고 배우는 면을 고려해서 언어 체계 중에서 취사선택된 문법을 말한다. 이 선택의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구어나 문어에서 자주 쓰이는 빈도수, 의사소통에서 중요성, 난이도를 들 수 있다. 괴체(1993, p. 9)는 교육문법이 지향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교육문법을 기술하는 언어는 단순해야 하며 사용자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규칙은 텍스트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터득되어야 하며 연습문제를 통해서 심화되어야 한다. 교육문법은 모국어문법보다 더 많이 설명해야 한다. 이는 모국어화자에게는 당연한 구조가 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법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교육문법은 음, 형태, 문장, 의미론, 화용론을 포함해야 한다. 이 문법은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출발어와 목표어 사이의 언어 대비, 학습의 어려운 점, 두 언어 사이의 간섭 현상을 고려한다.

짐머만(Zimmermann, 1979, p. 96)은 교육문법을 목적, 학습 대상과 수업에서의 문법의 기능에 따라 교사를 위한 문법과 학습자를 위한 문법으로 나눈다. 그리고 교육문법을 교재와 연관시켜 최종적으로 4가지로 세분하였다.

- 교재와 연관 없는 교사문법으로 교재저자나 교사를 위한 것.
- 교재와 연관된 교사문법으로 교재지도서에 나오는 문법.
- 교재와 연관 없이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문법.
- 교재와 연관된 학습자문법.

용어와 관련하여 학습자문법(Lernergrammatik)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습자를 위한 문법으로 학생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학습 행위를 도와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chmidt, 1990, p. 153). 학습자문법의 개념도 근래에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언어 구조와 사용에 관한 기술과 설명을 넘어서서 학습과정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루쉬(Rusch, 1998, p. 233)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언어 체계까지도 포함시킨다. 이 주장은 중간언어문법(Interimgrammatik)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슈미트(Schmidt, 1990, p. 154)는 언어학문법과 교육문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언어학문법	교육문법
언어 전체를 기술 (예외까지도)	취사 선택
추상적인 기술	구체적인 기술
단순한 기술	(중요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
학습심리 고려안함	학습심리 고려 (이해, 기억, 응용)

루쉬(Rusch, 1998, pp. 236-237)는 학습자를 위한 문법 수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권고한다: 학습과정을 종전대로 관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로 시도해보는 세 단계에서 벗어나서 학습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야 한다. 즉, 텍스트에서 형태를 인식하여 끄집어낸다, 형태를 분류하고 모충한다,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본다, 쓰기 연습을 한다, 생산적인 작업을 한다.

헬비히(Helbig, 1999, p. 103)는 언어학문법과 교육문법 사이에 중간 단계 “Zwischentypen”이 있으며 이 중간단계의 하나로 학습문법 “Lerngrammatik”을 들고 있다. 이 문법은 어떤 교재나 언어 과정과 무관하게 언어의 규칙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학습하면서 찾아 볼 수 있는 문법을 말한다. 이 문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문법, 즉 필자의 표현에 따르면 중립적인 의미의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학습문법이 언어학문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Helbig, 1999, p. 105-106). 학습문법은 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하는 언어학문법과 달리 결과를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습문법은 언어 재료가 표층구조에 맞추어 취사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언어학문법은 심층구조의 연관성을 밝힌다. 학습문법은 예문을 통해서 규칙을 이끌어내고 특정한 문법모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학문법은 문법모형을 이용하여 언어구조를 전개해나가고 이유를 설명한다. 헬비히(Helbig, 1999, p. 105)는 학습문법과 교과서가 다른 점을 설명하였다. 학습문법은 언어 코스나 과정과 무관하고 문법구조를 기억하고 체계화하고 인지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는 언어 코스와 과정과 연관되어 언어재료를 도입하고 전달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습문법은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교과서는 문법 규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

헬비히의 학습문법 개념은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에게 많은 의미를 갖는다. 이제 어떠한 언어 코스나 교과과정과 무관하게 학습자를 위한 독문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학습 독문법은 학생들이 문법에 의심나는 것이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학습독문법은 독일어교과서 저술, 독일어학습에 기본 저서가 될 수 있다.

요약해보면 학습문법을 포함한 교육문법에서는 언어의 규칙이 그 자체를 위해서 기술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지식, 요구, 여러 전제조건 또 일정한 수업 목표에 따라 규칙이 선정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이 선정에는 규칙의 사용빈도수, 의사소통의 중요성, 난이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문법이 학생들이 언어를 수용하고 재생산하고 나아가서는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문법에서는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도 고려하여 언어 비교, 문화 비교도 고려할 수 있다.

III. 문법교육의 변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 문법 교육은 교수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천하여 왔다. 기존의 문법번역방법, 시청각방법, 의사소통방법과 90년대 이후 학생 중심의 문법교육의 경향을 논하기로 한다.

1. 문법번역방법(Grammatik-Übersetzungsmethode)에서의 문법교육

라틴어 문법 교육에서 비롯된 이 교수방법의 목표는 정확한 언어 체계를 전달하는 것으로 문법이 학습의 중점을 이룬다. 문법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개되며 수업에서도 이 단계를 존중한다. 문법은 각 품사의 형태에 중점을 두고 전문적인 문법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강변화동사, 약변화 동사 등. 학습자는 문법 규칙을, 예외적인 규칙까지도 세세하게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문법 규범과 형태에 관한 지식을 응용하여 문장과 텍스트를 해석하고 목표어에서 모국어로 번역을 한다. 연습문제에서도 형태, 문장 성분, 문장구조에 관한 것을 다룬다. 학습 성과는 문법 지식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학습자가 외국어의 문법 체계와 전문용어를 잘 익히게 된다. 교사로서는 학습 진도가 확실하며 평가도 수월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과 같이 학습 전통이 인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쉽사리 적용된다. 이 방법의 커다란 단점은 학습자들이 외국어의 지식과 실지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많은 차이가 나는 점이다. 문법 규칙은 정확히 알지만 실지로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문법 면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머리에 너무 각인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데에 장애가 일어난다.

2. 시청각방법(Audio-visuelle Methode)에서의 문법교육

이 교수방법은 외국어수업과 연관된 인접학문인 심리학, 교육학, 언어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심리학에서 1930년도 이래로 언어습득(Spracherwerb)이 인지적으로 규칙을 습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방, 일반화와 세분화를 통해서 습득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 이론이 60년 대 행동주의(Behaviorismus)학파의 학습 이론과 접목이 되어 언어가 자극(Reiz)과 반응(Reaktion)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다. 응용언어학에서는 구어체와 문법과 문맥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구조주의(Strukturalismus)의 이론이 문장의 종적이고 또 횡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문장구조를 훈련시키는 문형연습(Pattern Drill)을 발전시켰다. 또한 50년대와 60년대의 기술의 발달로 생긴 카세트, 녹음기, 랩 실 등이 체계화된 문장연습/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방법의 문법교육은 초보자도 하여금 언어구조의 특별한 지식 없이, 즉 의식적인 인지과정을 무시하고, 정확한 문장을 모방하고 습관화시키게 한다. 시청각 교재의 이용은 수업을 다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학습이 일종의 학습과정의 통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사가 문형연습을 시키는 등 수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며 학생들의 개인적인 요구나 학습 태도를 무시하게 된다. 특히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규칙을 인지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한 외국어 학습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체에 목표를 두지만 실제로 연습하는 것은 문법이 정확한 문장구조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많은 생략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방법에 훈련된 학생들의 실제 상황에 적응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3. 의사소통교수법(Kommunikationsmethode)에서의 문법교육

70년도 말과 80년도 초에 시청각교수법을 근거로 한 외국어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도는 언어학에서는 화용론(Pragmatik), 발화이론(Sprechakttheorie), 사회학(Sociologie)에서는 의사소통이론과 연관되어 외국어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실생활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인사하기, 출신에 대해서 묻기 등 의사소통 기능을 고려한다.

이 방법에 의한 문법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문장 구조 뿐 아니라 이 구조의 의미를 알아 실지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구조를 사용하는가를 터득해야 한다. 즉 문법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간주되는 것이다.

문장구조뿐 아니라 텍스트와 발화²⁾도 수업 대상이 된다. 이 때에 발화는 일정한 실제 상황에서의 표현 형태이므로 이 형태가 다양해진다. 수업 초기에서도 단순한 문장 뿐 아니라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단어나 구 등 다양한 형태가 제시된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 양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간 것에 대한 표현에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완료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문법의 지식보다는 문법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강조되어 학생들이 실제로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방법에서 다루는 주제는 록, 힙합, 헤비메탈 등 학생들의 관심거리를 중시한다.

단점으로는 언어의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 문법을 전달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주제에 따라 문법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겹쳐서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Deutsch aktiv Neu(1986, p. 10) 1단원에서 wer..., wie...,

2) 발화는 Äußerung을 의미하며 일정한 상황에서 앞뒤 문맥과 연관되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다.

woher..., wo...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한꺼번에 나온다. woher로 시작되는 문장은 본인의 경험으로는 한국 학생들에게 어려운 개념이라 첫 시간에 배우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

4. 학생 중심의 문법교육(Lernerorientierter Grammatikunterricht)

90년대에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이 재정비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외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제한된 외국어를 수단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Gnutzmann & Königs, 1995, p. 17). 언어수업이 학습결과뿐 아니라 학습과정을 중시하게 되고 학습자도 표현뿐 아니라 배우고 전달하는 과정 자체도 의식해야 한다.

문법교육도 학습자의 수준에 부합하고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일정한 형태를 인지하여 공통점을 찾아내어 규칙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된다(Funk, 1995, p. 38). 이 규칙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모국어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여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TV와 같은 미디어가 수업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과 어휘를 터득하고 전달하는 기회가 많고 이때에 학습과정에 대한 표현과 설명은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교수방법의 장점은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 편집 등이 학습자 관심과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실생활을 재현하는 상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외국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 상황을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토론 문화가 중시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 단점으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교사위주중심의 학습 상황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학습전통 때문에 소외되기 쉽다.

IV. 독일어교재와 문법의 제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수업에서 교재가 중추적 역할을 하며 교재에서도 언어 규칙과 구조의 전달 방식이 사실상 수업을 결정한다(Funk, 1995, p. 30). 교재에서 문법의 제시는 앞 장에서 언급한 교수방법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 교수방법론(문법번역방법, 시청각방법, 의사소통방법, 학생중심 방법)을 따른 교재들이 여러 종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각 방법에 대표적인 교재 한 종류를 중심으로 문법이 어떻게 다루어졌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1967), 2) Deutsch als Fremdsprache IA (1978), 3) Deutsch aktiv Neu 1A (1986), 4) Euro lingua Deutsch 1 (2002).

1.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1967)

일반적으로 독일어 교재에서 차례를 보면 문법이 다루어지는 범위, 단계, 형태를 알 수 있다. 이 들 교재의 차례 중에서 지면 관계상 한 단원만을 제시한다.

이 교재의 제 1 단원의 내용이다.

1) Gespräch

Der Artikel . Das Verb: Präsens

(fragen - antworten - sein)

Personalpronomen: er - es - sie

Verb + Adjektiv

각 단원에는 다루어질 텍스트와 문법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단원의 텍스트의 제목이 Gespräch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실제의 내용에서는(p. 3) Robertson과 Brega라는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텍스트 내용에서 교사가 명시적으로 언어수업에서 문법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p. 3): "Wir lernen die Sprache. Wir üben die Grammatik, und wir lernen die Regeln."

문법에서는 다루어지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전문 용어(정관사, 부정관사)를 사용하여 도표로 제시되어 있다(아래 참조): 관사, 동사(fragen, antworten, sein)의 현재형, 인칭대명사(er, es, sie), 동사 + 형용사 구조. 관사 부분(p. 4)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1격 형태와 복수 형태, 그리고 연습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연습문제는 주로 보충하는 것(괄호 넣기)으로 예를 들어 각 단어에 해당 관사를 보충하는 것이다(아래 참조).

이 과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구어체나 무엇보다 문어체에서 언어의 규칙을 알고 재생산하는 것이지 언어를 실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각 단원에서 배워야 할 문법에 맞게 텍스트가 구성이 되어있다. 텍스트에서 예문을 분리하여 문맥과 연관 없이 규칙을 설명한다. 문법의 제시는 도표로 정확하게 제시되고 텍스트와 연습문제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보다 문법에 정확하게 맞는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이다: Ich bin faul, und du bist fleißig(p. 3).

연습문제는 문법의 규칙에 맞추어 정확한 형태나 문장을 만들거나 문장을 변형하는 것(예를 들면 능동 문장을 수동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습대상자의 언어가 단일어인 경우에는 학습자의 언어를 이용하여 규칙이 설명되고 독일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과 외국어에서 독일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법 수업이 자주 있으며 이때의

번역은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행해진다. 이 책 4쪽의 문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³⁾

Der Artikel

der Lehrer das Heft die Regel
 ein Lehrer ein Heft eine Regel

<i>Singular</i>	<i>maskulin</i>	<i>neutral</i>	<i>feminin</i>
<i>bestimmt</i>	<i>der Lehrer</i>	<i>das Heft</i>	<i>die Regel</i>
<i>unbestimmt</i>	<i>ein Lehrer</i>	<i>ein Heft</i>	<i>eine Regel</i>
<i>unbestimmt negativ</i>	<i>kein Lehrer</i>	<i>kein Heft</i>	<i>keine Regel</i>

Plural

bestimmt *die Lehrer (Hefte, Regeln)*
unbestimmt *Lehrer (Hefte, Regeln)*
unbestimmt negativ *keine Lehrer (Hefte, Regeln)*

4쪽의 연습문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Übung 1: der, das, die?

___ Antwort ___ Füller ___ Lehrer
 ___ Bleistift ___ Herr ___ Lehrerin

2. Deutsch als Fremdsprache IA (1978)

이 교재의 차례에서 1과를 제시한다.

Inhalt

	Dialoge und Lesetexte	Strukturen	Intentionen
D	Guten Tag!	Präsens der Verben	sich begrüßen
	Fragen und Antworten	Imperativ (Sie-du)	nach Name, Herkunft
	Woher kommen Sie?	wo-woher-wohin?	und Ziel fragen
	Was machst du?	aus, in, nach	sich verabschieden

3) 이 논문에서 위의 4 종류의 책에서 제시된 고딕체, 이태릭체를 최대한으로 참고하였다.

LT	Herr Schmidt fährt nach M.	Entscheidungsfragen
	Ausländer in der Bundes-	Stellung der Satzglieder
	republik Deutschland	

차례는 세 부분(텍스트와 언어구조와 발화의도)으로 나누어 제시되어있다. 텍스트는 대화체(D)와 읽기 텍스트(LT)로 되어있으며 출신지, 행동의 방향, 행위의 목표를 다룬다. 언어구조에서는 동사의 현재형, w-의문문, 전치사, 일반 의문문, 문장 성분의 위치에 관해서 배운다. 발화의도에서는 인사, 이름, 출신, 목적을 묻고 헤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1과는 6쪽의 조금 긴 대화 텍스트(주제: Guten Tag)와 7쪽의 세 개의 짧은 텍스트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텍스트에는 사진이 달려있다. 본문 대화는 과에서 다루어질 주제, 즉 1과에서는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과 신상에 관한 대화 내용을 보여준다. 다른 텍스트들은 주제를 다시 나누어서 다루어야 할 구조(w-의문문, 일반 의문문, 질문-대답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 텍스트 다음에는 6페이지에 해당하는 연습문제(1-15)가 따른다. 이 연습문제는 위에 언급된 언어구조, 문법 내용에 따라 1-5, 6-7, 8-9, 10-12, 13-15로 나누어졌다. 각 구조를 소개하는 문장이나 텍스트가 먼저 제시되고 연습문제가 따른다(아래 참조). 이 연습문제에는 카세트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T 1-5), 보충연습, 대치연습, 문장연습, 대화연습, 반복연습 등이 있다. 과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역사정에 관한 짧은 텍스트(Aus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und in Berlin(West))가 있고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과 텍스트에 관한 질문이 달려 있다. 이 텍스트의 내용과 질문도 본문에서 배우는 문법과 연관이 된다.

이 교재의 특징은 텍스트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체로 되어있고 시각적인 매체, 즉 사진, 그림과 청각적인 매체, 카세트가 이용된다. 언어구조의 연습에서 문법의 규칙과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대화체의 질문과 대답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연습문제는 따라하기(발음, 문장연습 등), 문장성분 대치시키기 또는 보충하기, 문장만들기, 문장변형하기 등 다양하다.

8쪽의 연습문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Bitte ergänzen Sie:

T1

Beispiel 1: Hamburg --> Ich fahre nach Hamburg.

1. Hamburg 2. Frankfurt 3. München 4. Berlin 5. Köln

2) Bitte wiederholen Sie: T2

Sie fliegen - Sie fahren - Sie gehen.

3) Antworten Sie mit "ja": T3

Kommen Sie aus Paris? --> Ja, ich komme aus Paris.

9쪽의 연습문제의 형태는 예문을 제시해 주고 해당 단어를 보충하는 연습이다.

Wo	wohnen Sie?	- Ich wohne in Munchen.
Woher	kommen Sie?	- Ich komme aus Bremen.
Wohin	fahren Sie?	- Ich fahre nach Hamburg.

6) wo - woher - wohin?

1. kommen Sie? - Ich komme Paris.

3. Deutsch aktiv Neu IA (1986)

이 교재 1단원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단원에서 문법이 없다.

Inhaltsverzeichnis**Kapitel 1****. Verständigungsbereiche (Notionen)**

Identität von Personen: Name, Adresse, Telefonnummer,
Beruf, Alter, Nationalität/Herkunftsland

. Intentionen

Begrüßen, Vorstellen, Namen erfragen, Bitte um
Wiederholung/ Buchstabieren

. Situationen

Internationales Treffen, Anmeldung, Deutschkurs

. Texte und kommunikative Aufgaben

1. Wer ist das?
2. Guten Tag, ich heiße Bauer/ Das ist Frau Barbieri aus Italien
3. Wie schreibt man? Buchstabieren Sie bitte!
4. Herr Dupont kommt aus Frankreich

차례에서 보면 한 단원이 크게 목표영역과 도구영역으로 나누어졌다. 목표 영역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시하며 도구영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텍스트, 문법, 연습문제 영역이다. 전자는 다시금 세 영역(이해영역, 발화의도영역, 상황영역)으로, 후자는 두 영역(텍스트와 의사소통 과제, 문법 및 문법 연습)으로 구성된다. 1단원에서는 문법영역이 제시되어있지 않다⁴⁾. 다섯 영역은 다시금 세분화되어있으며 예를 들어 1단원에서는 위에서처럼 다루고자하는 내용이 세세히 표현되었다.

2단원에서 문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된다:

B Grammatik und grammatische Übungen

B1 Der Satz

B2 Die Satzteile: Verb und Nominativergänzung (Subjekt)

B3 Das Verb

B4 Die Konjugation: Präsens (1)

B5 Die Satzarten: Aussage, Frage (Wortfrage/Satzfrage),

Aufforderung: Imperativ (1)

Übungen Ü1 bis Ü10

21쪽에 Frau Barbieri kommt aus Italien 등 문장구조가 의존문법을 이용하여 제시된다:

Die Satzteile: Verb und Nominativergänzung (Subjekt)

kommt

Frau Barbieri aus Italien.

22쪽에 동사의 현재인칭변화를 도표로 제시하고 어미의 표시도 색깔로 강조한다:

Die Konjugation: Präsens (1)

Infinitiv		kommen	sprechen	heißen	sein	haben
Singular						
1. Person	ich	komm-e	sprech-e	heiß-e	3단원에서	
2. Person	du	komm-st	sprich-st	heiß-t		
	Sie	komm-en	sprech-en	heiß-en		

4) 필자의 의견으로는 처음 단원이라 문법이 의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고 2단원에서부터 문법이 나온다.

3. Person	er					
	sie	komm-t	sprich-t	heiß-t	ist	hat
Plural						
1. Person						
2. Person		3단원에서				
3. Person	sie	komm-en	sprech-en	heiß-en		3단원에서
	Personal-		Verbstamm		Endung	
	pronomen					

현재인칭변화를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 단계별로 학습한다. 단수는 2단원에서 복수는 3단원에서 배운다.

문법전문용어인 어간, 어미, 어미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존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의 구조를 전달하고 의존문법 용어인 주격보충어 Nominativergänzung(주어)를 사용한다.

문법설명에 시각적인 보조 자료가 많이 이용된다: 고딕체, 색깔, 그림, 문장 도표 등.

23쪽 이하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형의 문장구조가 의존문법을 이용하여 도표와 색깔과 숫자를 이용하여 제시되었다. 이때에 동사는 타원형으로 다른 문장 성분은 사각형으로 표기한다.

25쪽 이하에서 제시되는 연습문제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제시된다: 문장읽기, 보충하기, 문장을 만들기, 대답하기, 질문하기, 명령문 만들기, 묻고 대답하기 등.

이 교재에서는 문법이 나름대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일정한 문법모델 즉 의존문법의 이론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법이론의 용어가 교재에서 이용되어 교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Funk, 1995, p. 35).

연습문제의 유형도 다양하나 문장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보충연습의 예 (25쪽):

Ü2 Ergänzen Sie bitte

1. Ich heiße Wie Ihr Name? - Mein ist

4. Euro lingua Deutsch 1 (2002)

이 교재 1 단원의 차례에서는 단어와 문장 강세 외에는 문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2단원의 차례를 제시한다.

EINHEIT 2: WORTERLERNEN UND BEHALTEN

Inhalt	...Einführung in die Wortschatzarbeit
Kommunikation	...verschiedene Redemittel zur Unterrichtskommunikation
Grammatik	... Nomen: bestimmter Artikel, Singular und Plural
Texte	... Wörterbuchauszüge
Lernen zu lernen	... mit einer Lernkartei arbeiten ... Wortarten erkennen ... internationale Wörter erkennen

한 단원은 다섯 영역(내용, 의사소통, 문법, 텍스트, 연습)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영역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문법에서는 명사: 정관사, 단수, 복수가 다루어진다.

15쪽 (아래 참조)에 보면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이끌어내게 하려는 단계를 알 수 있다.

우선 2.1에서 단어를 듣고 강세를 표시하게 한다. 2.2에서는 단어를 품사별로 나누게 하고 2.3에서는 규칙을 학습자가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즉 이 과정에서 명사는 독일어에서 대문자로 쓰고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를 알아내게 한다.

2. Wortarten erkennen: Nomen – Verben – Adjektive

2.1 Hören Sie bitte die Kasette und markieren Sie den Wortakzent

aktiv	informativ	Aktion	Produzent
Produktion	Organisation	konstruieren	Organisator

2.2 Ordnen Sie bitte die Wörter nach Wortarten

Nomen	Verben	Adjektive
Organisation	organisieren	organisatorisch
Organisator		

2.3 Regeln selbst finden

Alle Nomen schreibt man auf Deutsch groß. Internationale Verben enden oft auf...

Internationale Nomen enden oft auf -ion. Internationale Adjektive enden oft auf...

2.4 Diese Wörter sind neu. Welche Wörter sind falsch eingeordnet?

Nomen.....Verben.....Adjektive.....
 Radio Relation exklusiv

학습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학습자의 언어를 고려하고 수업에서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게 한다. 14쪽 내지 19쪽에는 다음과 같은 연습이 있다:

1.3 Wie heißen die Wörter in Ihrer Muttersprache? (p. 14)

Deutsch Englisch Französisch Spanisch Italienisch
 Qualität qualify qualite calidad qualita

16쪽에서 단어의 정관사, 단수, 복수형의 형태를 실제 사진에 등재된 것으로 보여준다: Im Wörterbuch finden Sie die Artikel so.

또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보완하는 연습이 있다(17쪽):

Ergänzen Sie bitte die Regel. Der bestimmte Artikel heißt im *Plural* immer

19쪽에는 Probleme im Unterricht? Die Sätze auf Seite 90 helfen.로 되어 있다. 즉 수업에서 문제점을 말하는 데에 90쪽에 나오는 문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그림, 사진, 색깔, 놀이(예를 들어 25쪽 연습문제에 빙고게임 등)를 이용한다.

이 방법에 의한 문법수업에서는 모국어의 사용이 허용된다. 복잡한 구조를 모국어로 설명을 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면이 있다.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고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 구조의 비교도 허용하고 있다.

V. 독일어교육에서의 응용

다년간 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경험한 결과로 얻은 결론은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독일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문법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 학생들과 다른 점이며 언어교육이 실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추세일지라도 학생들의 이러한 열의를 장점으로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언어수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무조건 문법의 규칙, 특히 형태론에서의 어미만을 외우게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빼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지고 온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문법을 가르치는데에 교수법적인 면에서 세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독일어교육에서 교육문법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독일어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추

구해야 할 것이다.

수업재료의 취사선택과 단계 설정이 주요 관점이 되어야 한다. 이 관점은 독문법 전체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장에서는 필자의 경험에 입각하여 나름대로의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독일어교육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필자의 의견으로는 앞에서 헬비히(1999)가 주장했듯이 학습자가 문법을 배울 때에 스스로 찾고 확인하며 참고할 수 있는 문법 서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법은 우리말로 서술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제조건으로는 문법, 어휘에서 선정될 사항은 국제 규준에 맞추어 유럽공동 수준(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⁵⁾과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를 참조해야한다. 유럽에서 발간된 Schritte international 같은 독일어교재를 다룰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교재가 언어구조와 어휘를 제시하는 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 교재들은 Zertifikat Deutsch를 목표로 B1나 B2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재 이전 단계, 즉 A1, A2수준의 문법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수준의 문법서도 난이도, 사용빈도, 의사소통 중요성에 맞추어 구조를 선정하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과 관계 저서의 이론을 종합한 결과로 한국 초보자에 맞는 문법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⁶⁾.

문법서의 내용은 품사론과 문장론으로 나눈다. 품사론에서 순서는 동사,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수사, 전치사, 접속사 순으로 할 수 있다. 각 품사에서는 다시금 하부영역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문장론에서 문장의 종류와 문장성분의 위치, 부분장의 종류로 구분하고 다시금 하부 영역을 정한다.

각 영역은 해당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단순한 예문과 연습문제를 포함한다. 이때에 예문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는 어휘로 인해 구조에 관한 내용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 규칙 설명에서 기본적인 독일어 문법 전문 용어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문법 설명에서 한국어 구조와 비교할 수도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확실한 비교 근거가 있고 비교 설명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한해야 한다. 규칙은 한 영역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현재완료인 경우 조동사 haben, sein과 결합하는 형태를 둘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현재완료 1: haben + 과거분사, 현재완료 2: sein + 과거분사.

5) 이 수준에 의하면 언어 능력 단계를 A1, A2, B1, B2, C1, C2로 나눈다. A1은 일상생활의 간단한 표현과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을 소개하고 질문과 대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 A2는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과 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

6)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이 본인의 교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고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문법서는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담없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참고서 역할을 해야 한다. 연습문제는 주제가 재미있고 다양하여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

초보자를 위해서 난이도와 사용빈도에 맞추어 독일어수업에서 학습 초기 단계에 다음 사항은 과감히 삭제할 수 있다.

- 2격 명사와 이에 따라 2격 지배 전치사. Schritte 1권과 2권에 서도 이들 내용이 제외되었다.
- 가정법 1식
- 가정법 2식, 단 sein, haben, 화법동사의 가정법 2식은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계별 순서에서 일반적으로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대명사의 순서로 제시된다.

명사의 복수 형태는 대체로 각 교재에서 -e, -er, -0, -n, -s형으로 제시된다.

이 순서를 한국 학생인 경우에는 -0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전략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태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제에서는 현재, 현재완료, 과거, 미래만을 제시한다.

시제 중에서 의사소통 중요성과 빈도수를 고려하여 현재완료를 과거 보다 먼저 제시한다. 현재 완료에서도 haben과 결합하는 현재완료형 형태를 먼저 제시하고 난 후에 sein과 결합하는 현재완료형을 제시할 수 있다.

형용사어미는 사용빈도수는 높으나 의사소통면에서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 종전의 형용사어미 도표 등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문장의 구조에서 부문장은 초기에서도 후반부에 학습하도록 한다.

문법의 전문용어는 라틴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Götze, 2001, p. 192). 라틴어 전문용어는 한국의 독문법서에서도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국제적인 공동 이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나 초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문법의 설명, 문제 문구 등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학교나 공공기관의 시험, 테스트에 문제 문구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학생들이 문제를 한국어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철자의 크기, 고딕체, 이탤릭체, 색깔, 도표, 그림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VI. 결론

한국에서 독일어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질적인 발전을 강구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과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독일어 언어체계를 한국 학습자의 여건에 맞춘 독문법 저서가 필요하다. 독문법을 비롯한 언어 습득에 관한 저서들은 유럽 공동 수준에 맞게 또 교육문법의 이론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한다.

문법 영역의 취사선택, 단계별 순서는 난이도, 빈도수, 의사소통 중요성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 독문법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어야 하고 이 논문에서는 초급에 관한 제안을 해보았다. 이러한 제안이 각 품사의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화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언어습득에서 한국 학생들의 강점은 문법 이해에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강점을 단점으로 무시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질적인 독일어 습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ldegger, M., Müller, M., & Schneider, G. (1980).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 Langenscheidt.
- Braun, K. N., & Schmöe, F. N. (1978). *Deutsch als Fremdsprache IA*.
- Buscha, J., Schröder, J., & Helbig, G. (1989). *Linguistische und didaktische Grammatik*. Verlag Enzyklopadie.
- Europarat. (Ed.). (2001).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 Langenscheidt.
- Funk, H. (1995). Grammatikvermittlung in Deutsch-als-Fremdsprache -Lehrwerken: Historische und aktuelle Perspektiven. In C. Gnutzmann & F. Königs (Eds.), *Perspektiven des Grammatikunterrichts*(pp. 11-46).
- Funk, H., & König, M. (1991). *Grammatik lehren und lernen*.
- Funk, H., & König, M. (2002). *Eurolingua Deutsch I*.
- Gnutzmann, C., & Königs, F. G. (Eds.). (1995). *Perspektiven des Grammatikunterrichts*.
- Gnutzmann, C., & Stark, D. (Eds.). (1982). *Grammatikunterricht*.
- Götze, L. (1993). Lebendiges Grammatiklernen, *Fremdsprache Deutsch 2*, 4-9.
- Götze, L. (1999). Eine funktionale Grammatik für Deutsch als

- Fremdsprache. In B. Skibitzki & B. Wotjak (Eds.), *Linguistik und Deutsch als Fremdsprache. Festschrift für Gerhard Helbig*(pp. 81-94).
- Götze, L. (2001). Linguistische und didaktische Grammatik, In G. Helbig, L. Götze, G. Henrici, & H. Krumm (Eds.),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I*(pp. 187-194). Halbband.
- Helbig, G. (1992). Wieviel Grammatik braucht der Mensch, *Deutsch als Fremdsprache, 3*, 150-155.
- Helbig, G. (1999). Was ist und was soll eine Lerner-Grammatik, *Deutsch als Fremdsprache, 2*, 103-112.
- Helbig, G. (2001). Arten und Typen von Grammatiken, In G. Helbig, L. Götze, G. Henrici, & H. Krumm (Eds.),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I*(pp. 175-187). Halbband.
- Hilpert, S. u.a. (2007). *Schritte international Deutsch als Fremdsprache*, Bd. 1 u. Bd.2.
- Kleine, W. (Eds.). (1979). *Perspektiven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sterweg.
- Neuner, G. u.a. (1986). *Deutsch Aktiv Neu 1A*. Langenscheidt Pub Inc.
- Nieder, L. (1987). *Lerner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 Rusch, P. (1998). Schritte zum Ausbau einer Lernergrammatik, *Deutsch als Fremdsprache, 4*, 233-238.
- Schmidt, R. (1990). Das Konzept einer Lerner-Grammatik. In H. Gross & K. Fischer (Eds.), *Grammatikarbeit im Deutsch- als-Fremdsprache- Unterricht*(pp. 153-161).
- Schulz D., & Griesbach, H. (1967).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 Tschirner, E. (1999). Lernergrammatik und Grammatikprogression. In B. Skibitzki & B. Wotjak (Eds.), *Linguistik und Deutsch als Fremdsprache. Festschrift für Gerhard Helbig*(pp. 227-240).
- Zimmermann, G. (1979). Was ist eine didaktische Grammatik. In W. Kleine (Ed.), *Perspektiven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pp. 96-112).

이광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7684

이메일: prlks@snu.ac.kr

Received on Aug 07, 2009

Reviewed on Oct 22,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24, 2009

Accepted on Dec 4, 2009